

코스피	코스닥
2581.03	734.59
(-18.59)	(-10.60)
금리 (연-5년)	환율 (원-달러)
2.891	1379.25
(-0.045)	(-2.95)



대통령실 잔디밭에 떨어진 '빠라'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가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방한 공식환영식을 준비하던 중 식장으로 떨어진 북한 쌀포 '쓰레기 풍선' 내용물 추정 빠라(전단)를 치우고 있다. /뉴스시스

## 하이닉스 'HBM' 날개 영업이익 7조 '새 역사'

3분기 매출 17.4조 '사상 최대치' HBM·eSSD 등 고부가 제품 효과 전체 D램 매출서 HBM 비중 30% 주문량 따라 생산... 재고우려 일축

SK하이닉스가 분기 최대 실적을 올리며 초격차 기술의 위용을 뽐냈다.

SK하이닉스는 24일 올해 3분기 매출 17조5731억 원, 영업이익 7조300억 원(영업이익률 40%), 순이익 5조7534억 원(순이익률 33%)을 기록했다고 공식하고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3분기 6조 4724억원 대비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관련기사 3면〉

SK하이닉스는 "데이터센터 고객 중심으로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지속됐고, 이에 맞춰 회사는 HBM, 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하는 탁월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며 D램 및 낸드 모두 평균판매단가(ASP, Average Selling Price)가 전 분기 대비 10%대 증반올라 당사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는 고수익 제

품인 AI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이 이끌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3분기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의 비중은 30%에 달한다. HBM은 범용 D램의 5배에 가까운 가격의 고가 제품으로, 이번 실적에서 EBITDA 기준 마진율은 57%에 달한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SK하이닉스 측은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과거 반도체업계는 D램 과잉 재고로 시장 호황기가 닥친 바 있다. 반면 D램과 달리 HBM은 수요처의 주문량에 따라 생산하는 만큼 재고 우려가 없으며, AI 메모리 수요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오히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현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부사장)은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와 고객들의 AI 투자의지가 확대되고 있어 예상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는 컴퓨팅 파워의 요구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 시점에서 AI나 HBM 수요 둔화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HBM3E에 대한 고객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여기에 생산능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의 내년 요구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투자도 집행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수요에 모두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中 반도체 굴기 가속... 韓 정부 파격지원 절실

###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

#### 〈下〉 중국의 추격

CXMT, D램 생산능력 5배 증가 중, 3기 반도체에 64조 기금 투입 맞는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도

韓, 글로벌 패권 경쟁 승리 위해 세액 직접 환급제·기금조성 등 첨단산업 적극적 투자지원 촉구

"사실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기다."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갤럭시 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가천반도체교육원장)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지금은 중국"이라며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상향 등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중국의 빠른 추격이 가장 큰 위기

김용석 석좌교수의 말처럼,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D램(DRAM·임시기억장치)에선 약 70%, 낸드플래시(전원이 끊겨도 저장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에선 약 50%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격차를 줄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주요 D램 생산 업체인 창신 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2016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업체이지만 2020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생산 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 통해 2020년 4월 4만장(웨이퍼 단위)에 그치던 CXMT의 D램 생산수준은 현재 월16만장으로 늘어났고, 올해 말 20만장, 내년엔

30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산 능력을 4년 사이 5배 끌어올린 것이어서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비록 구식 메모리 생산 위주이고,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메모리에 뒤처져 있다는 '안심론'이 있지만,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에 이은 4위로 거센 추격을 하고 중국 정부는 약 64조원 규모의 3기 반도체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 ◆"미·중 같이 파격적인 투자해야"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석좌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적자가 나도 보조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산업 진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오가노이드 동물용 확장... 최적 치료제 연구"

메트로경제 '제약&바이오포럼'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 '블루오션' 사람 치료제 기반 의약품 개발 속도

인류를 위해 개발되어 온 최첨단 바이오 기술이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람과 함께 살며 사람과 비슷한 병에 걸리지만 수명은 평균 15년에 그치는,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람 위한 헬스케어 기술을 확장한다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과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이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L4-L5〉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은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화되면 사람과 유사한 질환을 앓고 유사한 사망 원인을 갖게 된다"며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람의 산업으로 연계하기보다, 사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빨리 동물에 적용하는 방향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지엔티파마는 인체용 치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이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장구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번째부터)과 내빈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지난 2021년 반려견용 치매신약 '제다큐어'의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공개했다.

지엔티파마의 이진환 박사는 "2년마다 진행되는 시판후 테스트에서 8주 결과, 24주 결과 모두 치매 개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며 "현재 1980여 동물병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반려동물에 맞는 최적의 치료 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사람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반려동물용으로 확장 적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에서 채취한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항암제를 적용해 최적의 치료제를 찾는 방법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사람의 경우 오랜 시간 임상 사례와 표준화된 시험법이 존재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항암제와 치료제는 전적으로 수의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박상우 장관 "디딤돌 대출 규제 완화 선과 불완전 드려 송구" /사진 뉴스시스  
▲ "임대업자나 국회의원이나"... 경실련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 38%

▲ 민주 "윤, 담당하다면 시정연설 나와야... 韓, 자체 특검안 내야"  
▲ 조국 "한동훈, 윤 부부와 결별하라... 마지막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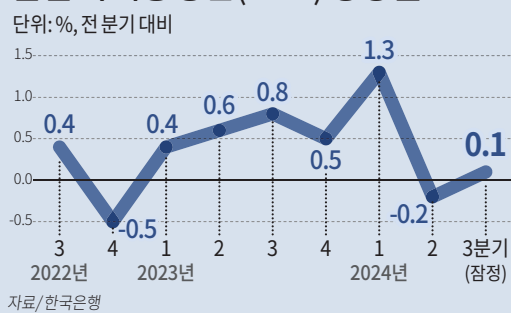
▲ 이주호, AI 교과서 2026년 이후 도입 계획 '속도조절' 시사 /사진 뉴스시스  
▲ 국회 외교통위 '북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소위 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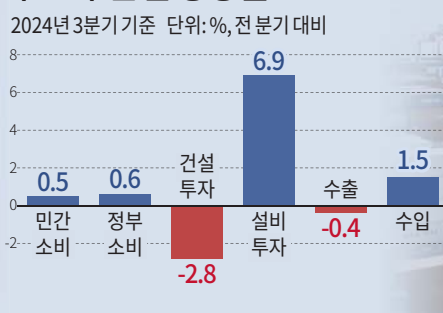
# 3분기 韓경제 0.1% ‘찐끔’ 성장... 한은 전망의 5분의 1 토막

내수 개선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 3분기 실질 GDP 0.1% 성장 그쳐 한은 예상치보다 0.4%p 낮은 수준 연간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예상

##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주요 부문별 성장률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됐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축인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한국은행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2.4%)도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가 0.1% 성장에 그쳤다. 지난 2분기 성장률(-0.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한은이 지난 8월 예상한 수치(0.5%)보

다는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내수가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며 "지난 8월 제조업 경기회복과 교역규모가 확대되며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제조업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중국 경기도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분기 내수는 민

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해 전분기보다 0.9%p반등했다. 민간소비에는 승용차, 통신기기 및 의료, 운수 등에서 소비가 늘어 전분기보다 0.5%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늘어 6.9% 늘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며 2.8%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하고, 수입은 기계장비 등이 늘며 1.5% 증가했다.

신 국장은 "IT부문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여기에 비IT부문에서 파업과 전기차 수요가 줄며 자동차·화학제품·전기장비를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져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전기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부문 수출이 둔화되고, 비IT부문 수출이 부진하며 수출이 성장률을 1% 가까이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한편 한은이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를 밀릴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p 낮췄다. 이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 국장은 "8월 전망에서는 4분기에 성장률이 전년 대비 1.2% 성장하면 2.4%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우선 3분기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낮아 2.4%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을 면밀히 체크해 다음달 전망할 때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타임빌라스’ 중심 쇼핑몰 사업에 7조 투자... 연 매출 6.6조 목표”

정준호 롯데백 대표 기자간담회 “국내 쇼핑몰 7년후 13조규모 예상 미래형 쇼핑몰 타임빌라스 키울것”

롯데백화점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의 쇼핑몰 사업에 약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쇼핑몰 점포수를 13개로 늘리고, 매출도 6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시장공략을 위해선 해외 쇼핑몰 사업에 신규 출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여전히 백화점이 우위에 있지만, 성장률이 정체된 반면, 쇼핑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쇼핑몰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준호 대표는 특히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국내 쇼핑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7년간 13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며 “자신감 있게 쇼핑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국내 ‘롯데월드몰’과 해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

이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오픈한 월드몰은 롯데백화점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K패션, 글로벌 F&B(식품), 팝업 등을 유치해 인기를 끌며 매년 25% 고성장을 거듭했다. 또 연간 5500만명이 방문하는 등 MZ세대의 쇼핑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1000만 누적 방문객을 동원한 베트남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개점 약 4개월만에 초단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 연말에는 3000억원 달성도 점쳐진다.

이에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미래형 쇼핑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브랜드 전략의 핵심으로 ‘타임빌라스(TIMEVILLAS)’를 내놨다.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에 별장을 뜻하는 ‘빌라스’를 더해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공간’이라는 철학을 담은 ‘타임빌라스’를 새로운 쇼핑몰의 브랜드로 내세우고 지향점을 담은 B.I(브랜드 아이덴티티)도 개발했다.

롯데백화점은 타임빌라스를 전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송도·수성·상암·전주에 4개

의 신규 쇼핑몰을 세우고 군산·수원·동부산·김해 등 기존 아울렛 7개점은 증축 및 리뉴얼해 쇼핑몰로 전환한다.

해외에서도 신규 출점 및 위수탁 운영 등 다각도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롯데그룹의 자산과 연계해 쇼핑·엔터테인먼트·숙박·주거·업무·컬처 및 아트 콘텐츠를 결합해 일본의 아자부다이힐즈를 연상케 하는 ‘멀티 콤플렉스’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건축가와 협업도 진행 중이다. 송도와 상암은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마이어’와 협업해 쇼핑몰과 리조트, 오피스텔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대구 수성은 영국의 쇼핑몰 설계사인 ‘LDA’와 협업, 쇼핑몰 안팎에서 즐길거리가 가득한 ‘인앤아웃도어’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일단 들어와!**

**모든 식품정보**

**푸드e음에 다 있다!**

원재료

연구장비

생산장비

전문가

교육

데이터

[www.foodpolis.kr/fbip](http://www.foodpolis.kr/fbi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 720-0500



# 하이닉스, 사실상 엔비디아 HBM 독점... 연간 실적 '장밋빛'

생산능력 조정 등 대규모 투자 예정  
어드밴스드 MR-MUF 고도화 착수  
증권가 "건조한 이익 증가세 예상"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실적 기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을 필요로 하는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향후 실적 또한 장밋빛이다. SK하이닉스는 HBM 매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CAPA(생산능력) 조정은 물론 초격차 기술 확보에 쓸 예정이다. 이미 SK하이닉스는 다음 세대 HBM인 HBM4 16단을 개발 중이며 향후 16단 이상 수요까지 대응하기 위한 어드밴스드 MR-MUF 고도화에 착수했다.

이강욱 SK하이닉스 PKG(패키징) 개발 담당 부사장은 "HBM의 핵심 기술인 스택(Stack, 반도체 칩에 셀을 복층으로 쌓는 기술)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 중"이라며 "AI를 활용한



SK서린사옥

기술이 각종 산업에 확산 적용되면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AI와 연동된 HBM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4일 SK하이닉스가 공시한 3분기 실적이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기록까지 뛰어넘은 가운데 기술 초격차로 반도체 1위 기업을 노리고 있다.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수요가 폭증하는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확보한 HBM 주도권에서 가능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3분기 HBM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HBM을 사실상 독점공급하고 있다. 생

형 AI로 촉발한 AI 붐 이후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는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한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HBM은 GPU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HBM3E 8단을 엔비디아에 업계 최초로 납품했다. 이달에는 12단 제품을 최초 양산하며 오는 4분기부터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HBM 과잉공급에 따른 위험을 우려하나 SK하이닉스 측은 "재고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날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HBM 제품군의 2025년까지 CAPA(생산능력)까지 대부분 예약된 상태"라며 "HBM 공급 과잉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설명했다. HBM은 고객사 수요에 맞춰 생산하는 만큼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엔비디아의 공급망 합류 여부에 따라 성과가 나뉘고 있다. 엔비디아 GPU를 거의 독점 생산 중인 TSMC는 3분기 순

이익 325억6000만대만달러(약 13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2% 급증했으며, 시장 전망치였던 3000억대만달러도 뛰어넘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이 사실상 좌초하면서 3분기 잠정 매출액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실적에 삼성전자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으로 사과문까지 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독식하면서 향후 전망도 밝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전체 D램 매출의 30%에 달했던 HBM 매출 비중이 4분기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IT 수요 개선세 둔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공격적인 캐파(생산능력) 증설로 레거시(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나 SK하이닉스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으로 향후에도 건조한 이익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현대차,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 매출 상승... 영업익 소폭 감소

매출 42.9조... 영업이익 3.6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기 침체 영향

현대자동차는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으로 매출액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현대자동차가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실시하고, 2024년 3분기 실적을 24일 공개했다.

3분기 ▲도매 판매 101만1808대 ▲매출액 42조9283억원 ▲영업이익 3조5809억원 ▲경상이익 4조3697억원 ▲당기순이익 3조2059억원이라고 전했다.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5% 감소했으며, 매출은 4.7% 증가했다. 순이익은 3% 줄어든 수치다.

2024년 3분기 글로벌 도매판매는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성장률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글로벌 산업 수요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가 역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3분기 경영실적과 관련 "매출액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판매단가 개선 및 우호적인 환율 환경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며 "다만 영업이익은 북미 지역에서의 선제적 보증 연장 조치에 따른 충당금이 반영돼 전년 동기

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환율하락, 금리인하 등 매크로 불확실성 증대와 중동·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차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목표로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품질 확보 ▲원가 개선 ▲판매 효율화 ▲글로벌 역량 확대 ▲내부 혁신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주요 시장의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및 규제에 급격한 변동을 적기에 알아차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선행기술 분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장려하고, 양산기술 분야는 품질 완성도의 타협 없는 무결점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사 차원의 원가 절감 노력에도 매진한다. 미래 제품 트렌드, 수익성, 효율적인 제조 및 부품 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도 핵심 부품 원가 개선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배터리 타입을 탑재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판매 부문에서는 주요 시장 침체와 경쟁 격화 등으로 업체별 인센티브 제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판매 불륨을 견조하게 유지하고, 차세대 모델을 잇달아 투입해 새로운 판매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계획이다.

/박대성 기자 iunmids@

# LG전자, 전장·공조 등 포트폴리오 고도화... 매출 22조 '신기록'

물류비 급등에 수익성은 하락

LG전자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가량 하락했다. 이는 물류비 상승 등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전 실적의 선방으로 4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전자가 올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22조 1764억원, 영업이익 7519억원의 확정실적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9% 감소했다.

LG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급등한 물류비 등에 영향을 받아

3분기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올 3분기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시장 수요회복 지연 외에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인상 발표 이후 국제 수출입을 앞당기려는 수요가 폭증하는 등 불가피한 외부 환경에 기인한 글로벌 해상운임 상승이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3분기 실적에 대해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4개 분기 연속으

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며 "불가피한 비용 증가 요인들을 상쇄해 나가며 적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본부별로는 생활가전(H&A) 사업부가 매출액 8조3376억원, 영업이익 5272억원을 기록했다. TV사업을 담당하는 HE 사업부는 올레드 주요 시장인 유럽지역의 출하량 증가로 매출 3조7473억원, 영업이익 494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가전 수요 회복 지연에도 B2B 냉난방공조(HVAC) 사업과 가전

구독 사업의 빠른 성장이 매출 확대를 견인했다.

전장(VS)사업부는 매출액 2조6113억원,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고, 비즈니스 솔루션(BS) 사업본부는 물류비와 투자 비용 등으로 매출 1조3989억원, 영업손실 769억원을 기록했다.

BS(비즈니스 솔루션)사업본부는 매출액 1조3989억원, 영업손실 769억원을 기록했다. 게이밍모니터, LED 사이니지 등 전장 제품의 판매가 늘고 PC 제품의 대규모 B2B 물량을 확보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 다만, LCD 패널가격 상승, 물류비 부담, 경쟁 심화 등의 요인과 신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며 영업손실 규모가 늘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전구

독, 소비자직접판매(D2C), 볼륨준확대 등 다양한 사업방식 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특히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B2B의 꾸준한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품판매 위주 사업 대비 수익성이 높은 플랫폼 기반 콘텐츠·서비스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뉴스





전국대의교수비대위가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을 규탄하고 있다.

## 정부 “의대정원 조정 불가” vs 의료계 “휴학승인 필수”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난항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 승인 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온도차를 보이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들은 부정적 의견이 많아 의정 간 대화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 2025년 재조정 불가 방침 의대정원 논의, 2026학년도 가능 학생 복귀·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복학 약속 있어야 휴학 승인 가능”

### ◆ “다음주 출범”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부터 삐걱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의대생에 대한 집단 휴학을 승인할지 여부다.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 의사단체들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협의체에 합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학년도를 포함한 증원 재논의와 함께, 의대생 휴학계를 조건 없이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의정이 팽팽하게 대립해 맞서고 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의협)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과 전국 의대의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3일 긴급 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 ◆ 의료계, “정부 대화 조건은 ‘휴학 승인’”... 교육부 “불가” 고수

이처럼 대다수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참여 가능성에 물고를 텃지만, ‘의대생 휴학’을 전제로 내놨다는 점에서 마냥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서 촉발한 이번 사태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휴학계 승인 여부로, 이번달 말께를 기점으로 휴학 처리되지 않은 의대생 대다수는 유급 또는 제적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지만, 교육부가 곧이어 서울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대학가에 ‘의대 휴학 승인’이 번지지 못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이 동일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정부와 대화 전제로 삼고 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각 대학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보유 대학 총장에게 ‘10월 31일

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정부, 2025학년도 증원 “확정”, 2026년 “조정 여지는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는 데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대입 수시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수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 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정원 내 기준)에는 최종적으로 7만2351명이 지원해 전형형을 치르고 있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은 조정 여지가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정부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 “정쟁 몰두” 국감, 내년 의대 상황 관련 질의 실종

9개월째 의대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

지만, 24일 교육부 종합감사로 마무리되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그렇다할 ‘의대 이슈’를 끌어내지 못하고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정감사는 건건히 여사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쟁으로 뒤덮이면서 의대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어진 국립대 대상 국감에서 일부 비수도권 의대가 서울 협력병원에서 수업하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나, 교육인프라 확충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작 의대 증원을 추진한 교육부 국감에서는 내년 상황 관련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의료계** 조건없는 자율적 휴학 요구 2025학년도 포함 증원 재논의 필요 31일까지 각 대학 총장에 승인 요청 정부 협상 전 휴학 문제 해결 우선 과제

다만 교육부가 종전에 언급했다가 논란이 됐던 ‘의과대학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 부총리는 “5년제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5년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이를 지원하고, 없으면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에 그쳤다.

교육부도 교육부 국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의대 관련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어 아쉽다”라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의대 증원 문제는 반드시 실렸어야 했다”고 했다.

교육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대 교육이 파행에 이르렀고, 의료 대란이 길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위 국감은 의대 논란을 두고 여야가 해결책을 이끌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논문 표절 의혹 등의 문제도 중요 사안이지만, 결국 이번 국감도 또다시 정쟁이 심해버렸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앞에서 열린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인 감사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시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YOU.  
내 안에 너 있다 IN.나.

NH가성비굿건강보험

암 진단비도

굿!

심장질환도

굿!

뇌혈관질환도

굿!

※ 가까운 전국 농축협과 농협손해보험 FC지점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넓게 보장하는 NH농협손해보험이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굿! 굿!  
이름값 하는 보험 NH가성비굿건강보험

NH가성비굿건강보험의  
3대 질환 집중 보장

암 진단비 보장도 굿!

\*단,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하며  
가입 91일 이후 보장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도 굿!

\*단,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하며  
최초 1회 한도로 보장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장도 굿!

\*단,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하며  
최초 1회 한도로 보장



※ 상품가입 전 직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30739호(2024.08.20~2025.08.19)

| 지금 가입하기 |

www.nhfire.co.kr  
1644-9000

NH농협손해보험





#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재언급… 野, 김건희 특검법 ‘압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역할)

與,尹-韓 면담 후 ‘자중지란’ 거듭  
친한계, 원내지도부에 의원총회 요구  
민주당, 내달 본회의서 특검법 상정  
與, 이탈표로 심리적 분당사태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반목은 보수 진영을 공멸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3일) 언급한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특별감찰관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맞물려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5년 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굳이 하는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공개 활동 중단·의혹 구명 협조)와 관련해 성과가 없자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시키는 것은 당론”이라며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의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의총을 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 나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진다면 이탈표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이 무너지고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당원들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방산협력 위해 양국 전략 파트너십 강화” 한동훈 “‘상승경제 7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 韓-폴란드 정상회담

尹 “지나해 폴란드 방문 계기의 성과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협력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치 공유국가이자 유럽의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협력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다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폴란드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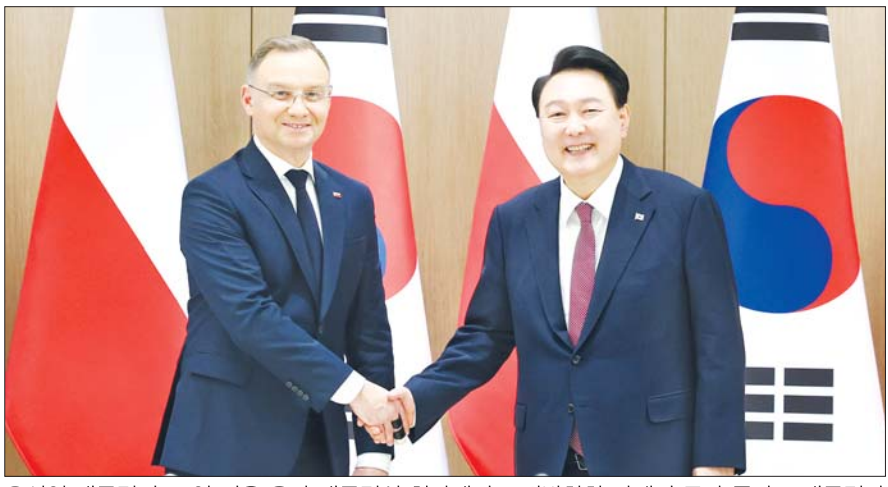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1989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국방,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도 폭넓게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나해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합의된 다양한 성과 사업들이 그동안 원활히 이행되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방산 ▲에너지 ▲교통·인프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호혜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공감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십조원어치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자2차 이행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를 감안해 양국은 국방·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첨단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해 양국은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다

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 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두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 반도체·원전 사업 겨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반도체·원전 산업 등을 겨냥한 ‘상승경제 7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과학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촉진과 동시에 신기술의 효율적·안정적 규범 제시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인

프라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하고 K-르네상스 시대 다시 여는 법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에 대한 법안 ▲경제사회적 격차에 고통 받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이다.

한 대표는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우상향하겠다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국민을 바라보면서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세수결손에도… “반도체산업 지원해야”

### >> 1면 ‘중 반도체 굴기 가속…’서 계속

그러면서 “사실 미국 같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가 돈(재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때 세율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의 해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반도체 산업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 ◆2년째 세수펄크에도, 할 일은 해야

여야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 특별법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컨트론타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반도체 자금 조성, 인력

양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여당에선 직접 보조금, 야당에선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건정 재정 기초속에서 정부가 산업 지원에 쓸 여력이 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0일 국회가 주목해야 하는 23개의 법안을 건의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인생 계획 하나하나,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위한, 하나금융그룹만의 솔루션

#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노후 설계 상속·증여 가업 승계

전문가와의 1:1 맞춤 종합 솔루션 제공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핀크 |



# ‘순익 5조 클럽’ 청신호… KB금융, 주주환원 보따리 푼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익 4.4조  
올해 8200억 자사주 매입·소각  
총 주주 환원을 업계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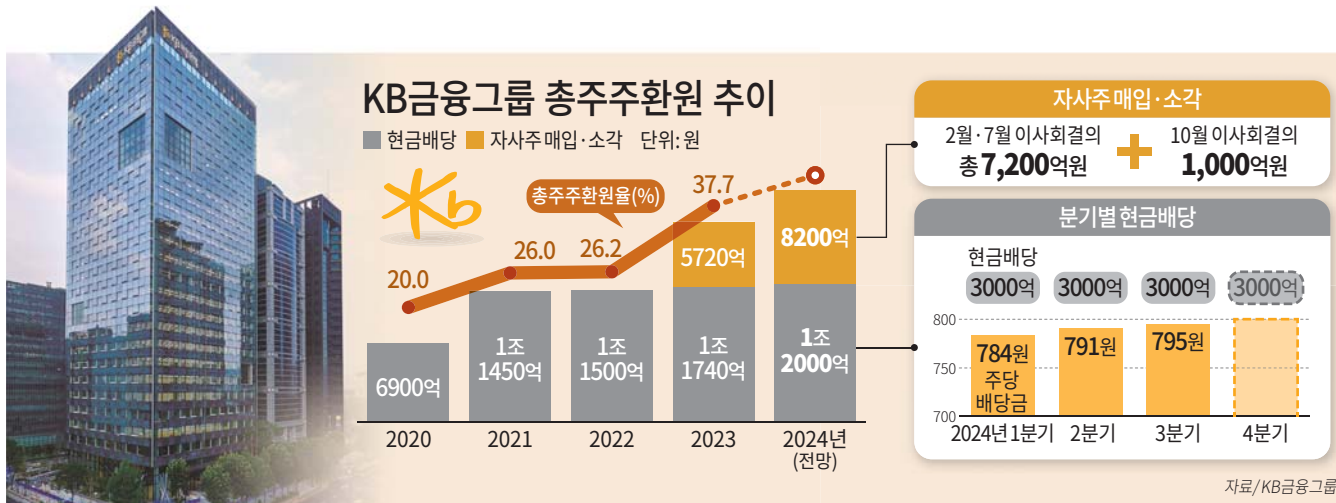
13% 초과자본, 내년 주주 환원  
주주·기업가치 최우선 의지 표명

KB금융그룹이 올해 총 8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에 나선다. 업계 최대 규모다. 장기적으로는 보통주자본 비율(CET1비율)과 연계해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KB금융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이하 밸류업 공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CET1비율 13% 초과 자본 주주환원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이날 실적 공개에 앞서 ‘본원적 수익창출력 강화 방안’과 함께 밸류업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먼저 올해 연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2025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2025년 연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한다. CET1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은 JP모건 등 글로벌 선도 금융사의 주주환원 방식이다. CET1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주주환원율도 증가한다.

KB금융 관계자는 “단순히 총주주환원율 목표를 제시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이 주주환원과 연결되어야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수익성과

건전성, 주주환원 제고 관점에서 각각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CET1비율 13% 이상, 이를 바탕으로 CET1비율 연계 업계 최고 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당가치 성장’ 방안으로는 주주환원의 프레임 전환을 선언하면서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10% 수준, 자사주 매입·소각 연평균 1000만주 이상을 내놨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배당금을 2분기 대비 상향된

795원으로 결의했다.

KB금융 재무담당임원은 “올해 총 82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업계 최대 규모”라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공식과 관련해선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내 밸류업 게시판 신설을 비롯해 내년 연간 실적 발표회에서는 개인투자자 대상 질의응답 기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3분기 누적 순익 4조3953억원

KB금융의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1조 614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8% 감소했다. 비이자이익이 7.9% 늘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전분기 대비 13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서 이자이익이 축소됐고, 2분기 일회성 이익의 기저효과도 영향을 비쳤다.

재무담당임원은 “전분기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과 관련해 총당부채환입 등의 기저효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정상적 기준으로는 전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3분기 그룹 및 은행 NIM은 각각 1.95%, 1.71%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수익률 리프라이징 가속화, 주택담보대출 금증 등 NIM 하방압력 요인이 3분기에 집중됐다.

9월 말 기준 CET1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5%, 16.75%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예적금 금리 떨어지자 ‘청년도약계좌’로 눈 돌린다

19개 은행 적금금리 평균 연 3.1%  
예금금리도 연 4% 넘는 상품 실종  
청년도약계좌 연 9.54% 적금 효과  
지난달 신규신청자 전월비 98% ↑



청년도약계좌 해택 증가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시스

고금리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만 34세 이하 가입 가능)가 인기다. 은행권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상반기만 해도 연 10%대 예·적금상품을 출시했지만 현재는 고금리 상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공시대상 19개 은행의 적금금리(우대금리 제외)는 연 2.44~3.70%, 평균 금리는 연 3.10%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KDB산업은행의 ‘KDB 기업정기적금’이 연 2.44%로 가장 낮았고, 우리은행 ‘WON적금’이 3.

70%로 가장 높았다. 우대금리를 포함했을 경우 연 2.44~4.90%로 BNK경남은행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이 가장 높았다.

예금금리 역시 연 2.40~3.42%,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연 2.80~3.55%로 연 4%가 넘는 상품이 없다.

상반기 예·적금 평균이 6%대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NH농협은행은 지난 23일 거치식 예금금리를 0.25~0.40%포인트(p), 적립식 예금금리는 0.25~0.55%p씩 하향 조정했고, 우리은행도 적립식 예금금리를 0.20%p 인하했다.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 11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시장금리를 수신금

리에 반영하면서다.

투자자들은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가운데 외면 받던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각광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상품이다.

납입금액은 월 1000원~70만원,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는 혜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 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약 60만원 증가한 것으로, 연 9.54%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외면 받았지만 현재 은행권 금리가 3%대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돌린 이유다.

실제 9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으로 전월 신규 신청자(5만명) 대비 98% 증가했다. 통상 신청자의 60%가량이 가입하는 걸 고려하면 5만여명의 신규 가입자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대 직장인 A씨는 “은행 예·적금 금리가 많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찾던 중 청년도약계좌가 눈에 들어왔다”며 “출시 초반과 달리 혜택이 늘었고, 만기 시 받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교체나, 연임이나… 조병규 우리은행장 내주 거취 결정

취임 후 우리은행 실적 증명에도  
연이은 금융사고에 연임 빨간불



조병규 우리은행장

올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사진)의 거취가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성과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는 오는 31일 회의를 열어 조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7~18일 조행장의

거취를 결론 내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조행장은 지난 2023년 7월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임기 만료는 오는 12월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조행장의 임기가 2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조행장은 취임 후 우리은행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순이익 1조 673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조2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 우리은행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은 182조9370억원으로 7.31% 늘어 지난해 7월 취임사 때 밝힌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조행장 연임 가능성은 높지만 내부통제 실패가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경남 김해금융센터 소속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약 1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로 총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지난 달에는 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세 번째다.

특히 금융당국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우리은행의 ‘은폐의혹’과 ‘늦장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조행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추위의 선택도 복잡해졌다. 오는 31일 자추위 회의에서 조행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별도의 롱리스트를 추리지 않는다. 즉, 조행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것으로 차기 행장 선임 프로세스는 가동되지 않는다.

반대로 조행장의 연임이 불발될 경우 조행장을 제외한 후보들로 롱리스트를 확정해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도입한 ‘은행장 선임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행장의 연임을 확정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자추위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거취는 이사회에 맡기겠다고 말할 것이 결국 누구 한 명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압박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철강업계, 中 경기부양책 주목 수요회복 등 업황 개선 기대감

업계, 3분기 실적 전망 부정적  
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나서  
“변동성 고려한 전략 중요해져”

국내 철강업계가 지속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시장 평균 전망치)는 매출액 5조8069억원, 영업이익 10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7.58%, 53% 감소한 수치다.

현대제철의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는 봉형강 부문 수요 부진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지목된다. 또한 당진 전기로의 감산 지속으로 고정비가 증가한 점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기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보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전망치도 다

소 부정적이다.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18조 6000억원, 영업이익 8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4%, 31.9% 줄었다. 사업 부진 원인으로는 포스코홀딩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철강 부문의 가격 하락과 이차전지 관련 사업 부진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철강사들은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역대급 엔저로 고역을 치렀다. 업계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중국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이 늘어 수요 자체가 저조해졌다.

다만 3분기를 변곡점으로 삼아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중국 철강 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건설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업황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침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연말까지 우량 부동산 개발 기업에 총 4조위안(약 76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침체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 하려는 조치다.

중국 내 건설업 등 산업 부양으로 철강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 중국산 해외 수출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철근과 H형강 등 봉형강 제품도 국내 건설경기 회복세에 따라 수요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국내 철강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 내에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j@metroseoul.co.kr

# 두산에너지빌리티, 카자흐스탄 산업발전 협력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MOU 체결

카자흐스탄 알마타시 샷칼리에브(A. Imassadam Satkaliyev) 에너지부 장관이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및 현대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방문단 일행은 한국형 원전 APR1400 주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공장, 380MW(메가와트)급 발전용 초대형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터빈 공장, 암모니아혼소 실증 공장 등을 찾아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

카자흐스탄은 화석연료 발전 설비용량이 전체의 약 80%에 육박한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개보수 및 현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울켄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해 원전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자의 71.12%가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김경관 마케팅부장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보유한 원자력, SMR, 가스터빈 등 무탄소 발전기술은 카자흐스탄 전력 계획에 가장 효



지난 23일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왼쪽부터) 카자흐스탄 알마타시 샷칼리에브 에너지부 장관과 두산에너지빌리티 김경관 마케팅부장이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해 카자흐스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 2023년 카자흐스탄 남부 심켄트 지역에 1조 1500억 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에 삼록카즈나, 삼록에너지 등 카자흐스탄 금융, 에너지 국영 기업들과 카자흐스탄 발전 산업 공동 협력에 관한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설비 공급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 SK, 에너지 등 사장단 인사... ‘기술·현장’ 방점

김종화, 최안섭, 이상민 신규 선임  
전원 이공계 출신... O/I 성과 집중

SK이노베이션이 기술과 현장을 중심으로 2025년 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3개 SK이노베이션 계열사는 당면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Tech. 역량을 갖춘 기술형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사장들은 모두 이공계 출신으로, 기술과 현장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SK이노베이션 계열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O/I(Operational Improvement)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설명했다.

SK에너지 사장으로 선임된 김종화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정유, 화학 사업을 두루 경험한 울산 CLX내 최고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최안섭  
SK지오센트릭 사장



이상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

의 생산 전문가다. 최근 유가변동과 같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공정 운영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안섭 신임 SK지오센트릭 사장은 R&D(연구·개발) 연구원 출신으로, SK지오센트릭 최적운영실장과 전략본부장 등 SK지오센트릭의 주요 보직을 다 거쳤던 만큼 풍부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SK지오센트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상민 신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 또한 R&D 연구원 출신으로, SK㈜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첨단 기술 개발을 거쳐 SK엔무브 그린성장사업실장 등 성장사업에서 역량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냉난방공조(HVAC)와 전기차용 윤활유(e-Fluids) 같은 주요 신사업을 단기간에 안착시키는 등 SK엔무브의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차현정 기자

# “통합 라이브 지도 서비스로 자율주행 완성”

하이테크놀로지스 간담회

“지도가 차량을 똑똑하게 만들 것”

맵 데이터 전문 기업의 사업 영역이 내비게이션에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서비스는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라이브 맵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글로벌 맵 데이터 기업 ‘하이테크놀로지스’와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다. 하이테크놀로지스는 아우디·BMW·다임러 등 독일 완성차(OEM) 3사가 소유한 회사다. 4000만개 이상의 지도 데이터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거의 모든 상용차 업체에 지도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하이테크놀로지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SDV) 시대 차량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가공해 전 세계 모든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에 하나의 통합된 라이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러한 라이브 지도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차량은 센서가 주변 상황을 감지해 움직이지만, 센서가 감지할 수 없는 더 넓은 범위를 라이브 지도 서비스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 흐름과 같은 실시간 정보가 자율주행 차량에 전달되면, 자율주행 차량은 최적의 경로를 구상해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다.

하이테크놀로지스는 자사의 기술력



미디어 간담회에서 하이테크놀로지스 램코 티머 부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을 자율주행과 접목하기 위해 독일 등 일부 지역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램코 티머 부사장은 “시속 95km까지 아이스프리·핸즈프리 운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시각 정보나 조작 개입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이테크놀로지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지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도 제한·교통법규 등의 정보도 갖추고 있어 자율주행 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설계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램코 티머 부사장은 “공공데이터, 항공 데이터, 차량카메라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취합하고 통합해 실시간에 준하는 속도로 지도를 업데이트하겠다”며 “SDV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차량 센서의 정보를 다시 지도 구성에 활용하고, 지도가 다시 차량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순항... EPC 공정률 40% 도달

〈설계, 구매, 공사〉

2026년 6월 기계적 준공 목표

에쓰오일이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여 샤힌프로젝트 진행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9조 2580억 원을 투자하는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대규모 장치와 설비를 설치하는 EPC(설계, 구매, 건설) 공사가 본격화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의 전체 EPC 공정 진행률은 40%에 도달해 오는 2026년 6월 기계적 준공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부지 정리 공사 작업이 마무리됐고, 초대형 크래킹 히더 총 10기 중 벌써

8기가 자리를 잡았다.

크래킹 히더는 스팀 크래커의 핵심 장치로, 나프타·LPG 등의 원료를 열분해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전체 모듈 설치가 완료되면 높이 67m에 달하는 10개의 설비들이 웅장한 위용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 美 대선 앞두고 AI 딥페이크 경고등 법적규제 강화·대중인식 개선 필요

AI 가짜뉴스 확산, 유권자 혼란 초래  
바이든, AI 선거운동 금지 행정명령  
인텔, 정맥 변화감지 탐지 기술개발  
해야, AI 음성 사기 탐지 기술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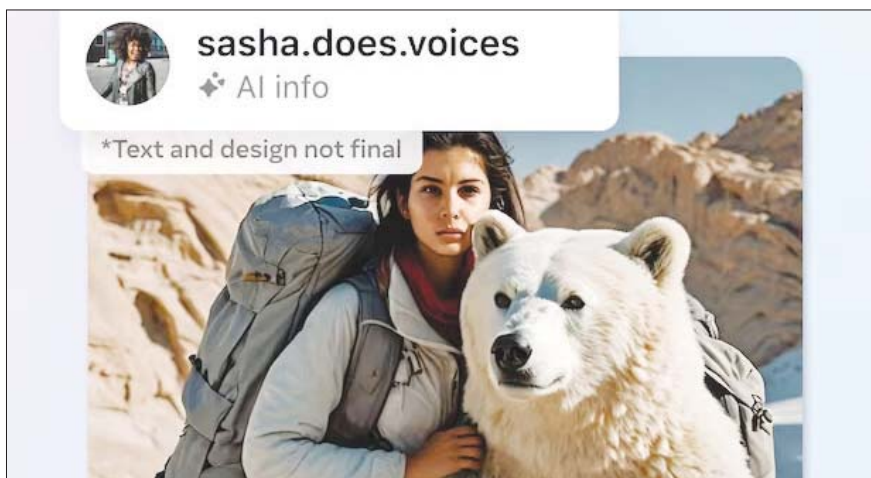
미국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위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유포돼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법적 규제와 기술적 대응 모두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딥페이크는 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 신체 일부를 조작한 콘텐츠를 뜻한다.

24일(메트로경제)취재에 따르면, 딥페이크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대선 후보 예비선거(프라이머리) 직전,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로보콜'을 받았다. 이 로보콜은 '프라이머리에서 투표하면 11월(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해당 전화 메시지를 만든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에게 82억원(약 6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크레이머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음성 전화 메시지를 만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선거가 과열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AI로 생성한 허위 이미지를 여러 차례 게시하며 논란을 빚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시카고 '공산당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이나 유명 가수 테일러



빅테크 기업들은 유권자들이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꼬리표)을 부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 이미지는 메타가 자사의 소셜미디어(SNS)인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AI 생성 이미지에 라벨을 부착한 예시. /메타

스위프트와 그의 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담은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미국 정부는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법적 제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AI를 이용한 선거 운동 규제를 담은 법안을 2건 발의했으나 아직 가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도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차단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구글과 메타, 오픈AI를 포함한 20개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반 딥페이크를 차단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꼬리표)을 부착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조작된 것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텔은 '페이크캐처'라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영상

속 얼굴의 미세한 정맥 변화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감지해 실제 인물과 조작된 인물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 '하야'는 AI로 생성된 음성을 탐지할 수 있는 '하야 딥페이크 보이스 디렉터'를 출시했다. 크롬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AI 음성 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야 관계자는 "제3자 테스트 결과, 확장 프로그램은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델은 학습하지 않은 AI로 생성된 음성까지도 감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합성 모델로 생성된 음성도 출시하자마자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허위·조작 정보와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IT 업계 전문가는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강력한 법적 규제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허위 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퍼펙트윈 ERP 에디션', 日 시장 진출

LG CNS 日 IT기업, 파트너십 강화

강화하고 있다.

LG CNS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재팬 IT 워크어업'에 전시부스를 마련해 '퍼펙트윈 전사적자원관리(ERP) 에디션'을 소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퍼펙트윈 ERP 에디션은 SAP ERP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거래 데이터 기반의 자동 테스트 솔루션이다.

LG CNS는 전시회 참가 외에도 일본 시장 내 퍼펙트윈 라인업 공급 확대를 위해 일본 IT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이를 위해 지난 16일 LG CNS는 일본 IT기업 바르테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LG CNS는 바르테스의 현지 네트워크와 사업 노하우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 퍼펙트윈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바르테스는 일본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하는 IT기업이다. LG CNS는 바르테스 외에도 씨이씨커스터머서비스, 와이드텍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일본 현지 IT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일본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MZ세대 생활 밀착 포인트 제휴 확대

CJ올리브네트웍스 슈퍼앱 도약 선포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슈퍼앱 도약을 선포하며 여행·생활·편의·모빌리티·교육 등 산업별 대표 브랜드와 제휴를 추진, 다양한 혜택을 선보였다. 특히 MZ세대 회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지속 발굴해 메가MGC커피,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 OPIc 등과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MZ세대 유입 확대를 위해 멤버십 서비스 CJ원(ON E) 포인트 제휴처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CJ원 회원 3000만명 중 60%가 MZ세대로, 멤버십 포인트 적립·사용 건수는 전체의 76%, 활용 포인트는 73%를 차지한다. MZ세대 회원들이 선호하는 CJ브랜드로는 CJ올리브영, CGV, 온스타일, 푸레쥬르 등으로 CJ원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가장 활발하다.

아울러 문화생활에도 관심이 많은 MZ 회원들을 위해 걸쳐 라이프 플랫폼 '원픽컬처'를 활용해 전시·공연 무료 초대 및 할인 이벤트를 비롯 영화 등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을 제공해왔다. /김서현 기자

## 삼성, '겔AI'로 글로벌 언어 장벽 없앤다

네덜란드어 등 통역 언어 20개 확대



삼성전자가 갤럭시 인공지능(AI) 지원 언어를 20개로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16개 언어에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튀르키예어 등 4개 언어가 새롭게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갤럭시 AI 지원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간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이다.

갤럭시 AI 지원 제품 사용자는 이달 말부터 설정 앱에서 새롭게 지원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 AI는 20개 언어를 구사하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갤럭시 AI가 제공하는 언어 기능

'갤럭시 AI'의 지원 언어에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튀르키예어가 새롭게 추가돼 총 20개 언어로 확대된다. /삼성전자

은 ▲실시간 통화 통역 ▲대면 대화 내용을 즉시 번역해주는 '텍스트 통역' ▲효율적인채팅을 돕는 '채팅 어시스트' ▲노트 내용의 번역과 정리를 지원하는 '노트 어시스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바로 번역하는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웹페이지를 번역하는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항공기 도입 확대... 승무원 대규모 채용 전망

기단 확장... 인력 총원 필요성 확대  
대한항공, 외국인 승무원 채용 지속  
제주항공, 지상 정비 인력 수요 증가

항공업계가 항공기 추가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인력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객 수요에 의해 항공기 도입이 늘고, 기체 도입이 늘어나어서다.

24일 항공정보시스템 업체별항공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만5661명이던 종사자 수가 2023년 2만6511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항공업계가 회복하고 있어서다.

항공업계는 2024년 상반기 이미 대규모 채용에 나선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100명·경력직 기장 및 부기장 60명 ▲에어부산 승무원 및 정비사 80명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 46명 등을 채용했다.

하반기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밝힌

항공사는 없지만, 기단 확장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오는 2025년도 항공업계 채용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B737-8 항공기를 2025년 7대, 2026년 5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프레미아도 B787-9 항공기 4대를 2025년 3분기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LCC)업계 1위 제주항공은 기체 도입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B737-8 항공기 50대를 도입할 계획인 만큼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부터 외항사 등 타 항공사의 지상 조업 업무도 맡고 있어 정비 인력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각 국가의 문화와 승객 니즈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 승무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

다. 대한항공(FSC)인 대한항공도 채용에 나서는 만큼 항공업계 채용 시장은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영업을 중단했던 ▲플라이강원(파라타항공) ▲하이에어 등이 재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가 인수해 '파라타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기업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해 왔다. 18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결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울산공항을 모기지로 두고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소형항공사 하이에어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가운데, 오는 2025년 재취항을 목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박대성 기자 iunm@

## 물류업계 첫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획득

CJ대한통운 곤지암 체험관 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CJ대한통운의 안전체험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물류업계 최초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을 받았다. 2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은 체험형 교육 확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인정을 받기 위해선 교육 프로그램, 강사, 교육장 시설 및 장비 등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매 1년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평가받는다. /김승호 기자 bada@





조수정 초대전

# 숨추며 노래하는 빛들

2024. 10. 24(목) ~ 11. 4(월) 갤러리아람

관람시간 11:00 ~ 19:00 (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 / 매주 일, 월 휴관)

Gallery **아람**

갤러리 아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문의 02.6743.3370

주최 Gallery **아람** 후원 **아람비** ARAMBI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안개발



# 개미는 '삼성전자', 外人은 'SK하이닉스'... 엇갈린 투심

개인투자자-外人, 매수·매도 정반대  
外人 순매수 상위 종목, 22.70% ↑

개인투자자 5개 종목, 평균 0.004% ↑  
국내증시 흐름 부진에 이탈 양상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투심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주목하면서 투자 주체별 수익률 희비도 엇갈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9월 23일~10월 2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5조4374억원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다. 반면, 같은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는 1조4387억원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대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이 갈린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흐름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놀란 사람들' 이미지.

보였으나 개미들과는 상반됐다.. 동일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1조5234억원)이며,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5조9008억원)다. 투자 주체별로 선호 종목뿐만 아니라 순매수 규모와 순매도 규모도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9월 3일부터 이

달 23일까지 삼성전자를 31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역대 가장 기록을 경신했다. 31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1조9597억원 팔아치웠으며, 주가는 20.56%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대장주로 코스피 흐름을 좌우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27.90%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로 평가되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국내 증시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25%"라며 "시총 비중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포함만 됐어도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라고 짚었다. 삼성전자만 제외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 부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들어 8월, 9월, 그리고 이달까지 약 세 달간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에서도 동학개미들과 희비가 엇갈렸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려아연,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5개 종목은 평균 22.70% 상승했다.

반면, 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는 삼성전자, 기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삼성전자우, 유한양행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

승률은 0.004%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개미들이 압도적으로 사들인 삼성전자는 6.19% 하락했고, 2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기아는 11.93%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 역시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내 증시 거래대금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59.67%로 전년 동기 67.57%보다 감소했다. '검은 월요일'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의 투심 악화로 자금이 해외로 이탈 중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의 파급력도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 한도와 세제 혜택이 강화되고, 이는 개인 수급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이복현, 교체 vs 연임... 국감 후 거취 '주목' 자산운용사 'ESG 위원회', 실질적 운용 저조

(금융감독원장)

국감 막바지·尹 임기 절반 지나  
업계 "통상적으로 임기 못채워"  
대통령 의중 반영에 '연임' 관측도

22대 국회 첫 국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정치권에선 재임기간이 2년 넘은 차관급 인사들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취임 3년차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도 눈길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했으니, 내달 11일이면 임기 절반이 지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정권이 임명한 첫 번째 금감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원장도 이번 국감 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장을 지낸 15명 중 임기 3년을 온전히 지낸 인물은 5대 윤증현·7대 김종창·13대 윤석열 전 원장뿐이고, 이 중 정권이 임명한 첫 번째 금감원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친 사람은 김종창 전 원장이 유일하다. 16대 금감원장으로 2022년 6월 취임한 이 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점은 내년 6월이다.

특히 이 원장의 거취는 국감이 열릴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정치권과 업계의 이목을 끄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원장이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이른바 '윤석열 사단' 막내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출마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혹 정치에 할 생각이 있는냐"라고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 원장은 "제가 세 번째 국정감사인데 게

속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믿어 달라"며 선을 그었다.

올 상반기에는 이 원장이 선출직이 아닌 직제상 차관급이자 비선출직인 주 OECD 대사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 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을 넘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연임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역대 금감원장 중 연임한 사례도 아직 없다.

의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냐"며 "지금 추진하는 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려면 연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조직이자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의 장은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상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이에 금감원 측은 "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제도 개선·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활발히 운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운용사 중 25개사가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기후리스크지침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역시 미흡하며, 금융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감축 목표를 설정한 운용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26개 운용사 중 20개사가 총 264개·14조8495억원 규모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전체 운용자산 중 ESG 펀드 규모는 1.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대상 운용사들이 모두 스투어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은 저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4개 운용사는 분석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관여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운용사들은 평균적으로 대상 기업당 1.16회의 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주로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대화의 형식적 방법에 그쳤으며, 공개대화, 주주권행사 등 공개적인 방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국내 주식 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ESG 경영과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이와 관련한 질적 판단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운용사가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투어십 코드를 제외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리스크관리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측정, 공시 등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한투운용, 'ETF 연금투자 가이드북' 공개

ISA·연금계좌 내 ETF 활용 서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최신 정보를 담은 '2024 ACE 상장지수펀드(ETF)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24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연금투자 가이드북을 업데이트한 버전(판)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설명과 연금계좌 내 ETF 활용에 따른 장점을 더 자세히 담았다.

'ISA'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해 운용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외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30세대 연금투자자부터 인출을 앞둔 중장년 연금투자자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ETF를 활용한 연금투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담당은 "ETF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분산투자에 따른 장점 덕분에 연금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특히 해외주식 ETF의 경우 연금계좌에서는 직접 투자할 수 없는 해외주식을 편입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금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ACE ETF 라인업' 소개도 보완됐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ACE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ETF와 ACE 미국 나스닥100 ETF 등 선별된 33종의 ETF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 3분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 4507억

전분기 대비 66.1% ↓... 건수도 감소

올해 3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금액과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은 450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1% 줄었다. 같은 기간 행사건수도 693건으로 44.5% 감소했다.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 또는 타 회사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종류별로 행사금액을 보면 CB가 3969억원으로 전분기(1조1112억원)보다 64.3% 줄었다. EB는 215억원으로 88.4%, BW는 323억원으로 4.4% 감소했다.

권리행사 건수는 CB 428건으로 전분기(726건) 대비 41% 감소했다. EB는 74.2% 감소한 25건, BW는 43.7% 줄은 240건이었다. /원관희 기자



# 삼바에피스, 바이오시밀러사업 '훨훨'... 누적매출 1조 돌파

연간 최대실적 조기 경신  
바이오젠 등서 마일스톤 수령  
신제품 판매로 성장 가속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1조1403억원, 영업이익 3631억원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조기 경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3년 연간 실적으로 매출액 1조203억원, 영업이익 2054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3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초과 달성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매출액은 올해 1분기 2801억원, 2분기 5299억원, 3분기 330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분기 381억원, 2분기 2571억원, 3분기 67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구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개발 성과 달성에 따라 파트너사로부터 수령하는 '마일스톤'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마일스톤은 별도의 비용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산도스로부터 총 2205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4월

과 7월에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성분명: 우스테키누말)' 품목허가를 승인받고, 5월에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펜비즈(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미국 허가를 획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오펜비즈의 경우, 지난 9월 유럽에서 오펜비즈 품목허가에 대한 긍정 의견을 확보해 올해 안에 최종 허가가 결정되면 추가적인 마일스톤 발생이 예

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신제품 판매로 매출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유럽에서 피즈치바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신규 출시했고 오는 2025년 2월 미국 출시도 추진 중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문을 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초창기 우스테키누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서 기업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성분명: 펨블롤리주맵)'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 수행하는 '오버랩 전략'을 펼치고,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SB16(성분명: 데노수맵)'을 개발하는 등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실제로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위암, 두경부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암제로, 지난 2023년 글로벌 1위 의약품에 이름을 올렸다.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50억1100만달러(약 32조5143억원) 수준이다. 물질 특허는 오는 2029년 11월과 2031년 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프롤리아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61억6000만달러(약 8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바이오 벤처 인투셀과 항체-약물 접합체(ADC) 신약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인투셀은 ADC 전문 기업으로, 올해 2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에서 한국거래소 지정 기관인 SCI 평가정보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 시멘트업계, 출하량 급감... 초긴축 경영 예고

1~3분기 3222만t... 전년비 13% ↓  
전기로 인상 겹치며 업황 악화일로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로 인상까지 겹치며 제조사 전기료를 많이 쓰는 시멘트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4일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표한 '2024년 시멘트 수급전망'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시멘트 출하량(내수)은 3222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내수 총 출하량은 4400만 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꼭 10년 전인 2014년 당시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4371만 t이었다.

특히,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에 시멘트 판매량은 두 자릿수 가까이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내부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일부 생산 설비에 대한

<2023~2024년 시멘트 수요 실적·전망 (단위: 만톤) /한국시멘트협회

구분	2023년	증감률	2024년	증감률
내수	5,024	1.2%	4,400	-12.4%
수출	208	-21.2%	304	46.2%
총출하	5,232	0.1%	4,704	-10.1%

가동 중단도 검토 중이다.

시멘트 내수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주요 건설 관련 선행지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방안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건설수주액은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 수준까지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내년 수요가 올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국내 수요가 4200만 t 이하로 떨어질 경우, 내수 출하량은 2014년 출하량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가 추가 인상되자 이에 따른 수익성 추가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월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출하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과 탄소중립 등 환경 부문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멘트 업계는 초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김학규 디케이오스텍 대표, 금탑산업훈장

중소기업융합대전  
원경연 정원기계 대표 동탑훈장

중소기업간 융합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 등을 공유하는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디케이오스텍 김학규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융합대전'을 열고 금탑훈장 1점, 동탑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5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등 총 15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대표는 자동차 서브프레임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부품 국산화로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자동차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해왔다.

동탑훈장은 자동차용 정밀기어 등 연구개발로 꾸준한 매출 성장과 지역 경

제 발전에 기여한 정원기계 원경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행사에선 기업 간 협업 성과물을 비롯해 150여개 기업이 참여,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또 협업기업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지역인재 채용 현장면접도 진행했다.

중진공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소 동반성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토록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전-기아, V2G 등 전동화 신기술 개발 맞손

(양방향 충·방전)

PBV 활용 전력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한국전력은 23일 서울 Kia360에서 기아와 함께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활용한 미래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전의 직무특성에 최적화된 PBV 모델을 개발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전기차 자동 결제 충전(PnC)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

PBV(Platform Beyond Vehicle)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 제작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충실하도록 고안된 맞춤형 교통수단을 말한다. V2G(Vehicle-To-Grid)는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한전 부산울산본부에서 PBV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측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빌리티 맞춤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신사업 발전에 기



한국전력 이준호 안전&영업배정부사장(왼쪽)과 기아 정원정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이 23일 서울 Kia360에서 'PBV를 활용한 미래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 전력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공정위, 한국파파존스 과징금 14.8억 부과

세척용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 적발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주방세제나 손소독제 등 자사가 공급하는 세척용품 구매를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파존스 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피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 거래처를 제한했다.

아울러 파파존스는 2015년 8월 ~ 2022년 4월까지 기간 중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체코 원전 자금조달 논란 일축... “계약 무산은 일방적 주장”

## 산자중기위 국감

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 문제 없다”  
체코 원전수수 EU 규정 위반 반박  
대기업용 전기요금 인상 교육지책

체코 신규원전사업이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산업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경쟁국으로 참여한 프랑스의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EU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금 규정은 2023년 7월 12일자로 발효돼 그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이 “얼마 전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질의에 안 장관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은 일방

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체코 원전 수수 금융지원과 의혹과 관련해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금융 지원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안 장관은 “(두코바니) 5호기 1개 입찰을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했었고 논의한 바가 없다”며 “6호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우리 신용기관이 금융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발표한 대기업 전기 요금을 중심으로 인상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와 한전은 주택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국내 전력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날부터 평균 9.7%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인상안은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됐던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억제됨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맞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지금 유박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올해 더 이상 인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해수부·기상청

### 극지환경 세밀 관측 등 생태계 기후 적극 대응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24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해수부가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해당 요소들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를 비롯해 엘니뇨·라니냐 등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또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문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우 다단계 논란... “담합 방지·수수료 조정 방안”

## 농해수위 국감

송미령 장관 “유통경로 간소화 동의”  
공정거래·유통구조 개선 방안 제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한우 유통경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 유통과정에서 중간유통마진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24일 “한우 유통과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우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통상적으로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친다. 농가-우시장-도축장-경매장-가공장-도매상-유통업체 등이다. 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구조에서 유통업체들은 20% 안팎의 마진을 챙긴다. 반면, 농가는 한우 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리당 손해가 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

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지난 5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적정선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넣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공영도매시장에 의존하면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농해수위의 위원들께서 지원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임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추 소비자가격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수급 예측의 차이를 지

적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배추 생산량 조사에서 21톤(t)이나 차이가 났다. 연구원은 올해 6월 배추가 1~2만t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실제 부족분은 갑절 이상인 5만t에 달했다.

송 장관은 “연구원과 통계청은 조사 시기와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치가 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은 생산자들의 재배 의향조사를 통해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이고, 통계청은 조사 작기가 시작하면 생산 후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수급 정확도 향상 방책으로, 송 장관은 ▲생산자들의 재배의향 조사 및 기상 상황 결합 ▲농림 위성 정보를 활용 등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국립공원 7곳, 연간 온실가스 192만톤 흡수

국립공원공단, ISO14064 검증서 획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의 온실가스 흡수량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온실가스 검증 국제공인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ISO14064) 검증서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국립공원 7곳(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을 대상으로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조사·분석했고, 지난 8월 영국왕립표준협회에 ISO14064 검증을 의뢰했다. 영국왕립표준협회는 현장

실사를 거쳐 국립공원 7곳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검증서를 지난달 10일에 발급했다.

검증서에 확인된 국립공원 7곳의 연 평균 온실가스 흡수량은 1헥타르(ha) 당 14.33CO<sub>2</sub>톤(t)으로 나타났으며, 소백산이 16.98CO<sub>2</sub>t으로 가장 높았다.

국립공원 7곳(면적 13만4598.6ha 기준) 전체의 연 평균 온실가스 흡수량은 192만8797CO<sub>2</sub>t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78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해외 농업·산림 개발지원 법적기반 강화

농식품부, 손실보상 포함 지원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국내 농업 기계 및 자재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일부 개정안이 이달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률에 따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농업 기계·농업 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 진출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정해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또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비상사태 발령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뽕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출연 김남호 김늘메 김준희 김민주 임재혁 정지환 이서정 이하정 차은진 김민성 서찬양 장이슬 석우성 손슬기 윤환호 김진솔 정다운 최린 김상원 서태이 양승환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 유정복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으로 생산 6.5% 취업 5.4만명 유발 기대”

(인천광역시)

국토부에 관련 제안서 제출 계획  
선도사업 선정 시 2037년 개통 목표  
경기도 공동 추진... 인천시 구간 14km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23일 인천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으로 6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만 4000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인선 철도가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이어지는 만큼 인천·서울·경기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상 철도 중 철도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에 맞춰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구체화해 이번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화할 사업과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김대의 기자

선정되면 2028년 설계에 들어가 203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에는 경인전철(운수역~인천역, 22.63km)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이중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km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6조 6천억원으로, 이 중 철도 지하화에 약 3조 4천억원, 상부 부지 개발에 약 3조 2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11월 중 국토부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사업구상’에 대한 발표와 평가가 진행되고, 올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

업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철도지하화특별법과 3월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경인전철 지하화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1거점(제물포 르네상스) + 2축(인천대로 일반화, 경인전철 지하화)’의 마지막 퍼즐로 구상하고 있다. 또 지상 공간 중 일부를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시설 및 공원, 상업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 경북도, 이산화탄소 모아 청정연료 만든다

포스코홀딩스(주) 등 12개 기관 참여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청정연료 등 유용한 물질로 만드는 사업이 경북에서 추진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에서 경북도와 포스코홀딩스(주)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은 산업공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메탄올, 올레핀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CCU 기술을 탄소 중립 실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 글

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 기술 기여도를 총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위한 절차로, 전국에서 27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 포항을 비롯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강원 강릉·삼척, 충남 보령 등 최종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포항은 2030년까지 261억원을 투입해 포스코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제철소 내 폐열을 활용해 저탄소 메탄올(신박용 친환경 연료)과 합성가스, 에틸렌카보네이트(2차전지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중앙대학교가 23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서울 서남권 지·산·학 업무협약'을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에서 체결했다. /중앙대

## 중앙대, 14개 기관과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서울 서남권 6개 대학 등 참여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 서남권 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대는 23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서울 서남권 지·산·학 업무협약'을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에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중앙대와 강서대·동양미래대·서울대·숭실대·총신대 등 6개 대학과 강서구청·관악구청·구로구청·금천구청·동작구청 등 5개 자치구, 서울경제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지원기관까지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서남권 14개 기관은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관별 창업지원 역할을 재정비하고, 창업기업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서남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14개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서남권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예비·초기 단계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자치구들은 창업기업의 지역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 성과 성장을 돕기 위한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

지원기관들은 도약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 ‘광운대역 물류부지’로 강북 전성시대 모색

서울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첫삽’  
자족 기능 확보 등 주요점 두고 개발  
뚝,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신설

지난 40여년간 강북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혀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7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노원구 월계동)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오는 2028년까지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자족 기능 확보 ▲기반 시설 확충 ▲열린 공간 조성에 주요점을 두고 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일지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 주력했다”며 “어려운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 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 하반기까지 전체 시설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하고, 강북권 신(新) 경제 거점 개발에 박차를 가해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고 선언할 예정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시는 강북 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사전협상’은 공공이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확보하는 제도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도 받는다. 협상 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3개월 내)으로 단축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

## 충주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중기부와 실증사업 준공식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충북 충주시 메가폴리스 산단에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충북 그린수소

산업 특구는 지난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됐다.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총 248억원

이 투입됐다.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후 1년여만에 완성됐다.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sub>2</sub>/day급 이상)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정제 시스템 실증설비를 구축했다.

수소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암모니아는 수소 함량이 17.6wt%로 매우 높고, 상온 기준 약 8바(bar)에서 쉽게 액화할 수 있어 대용량의 수소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신대-안랩, 인재양성·산학교류 ‘맞손’

지역 청년 취업·상호발전 도모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김용희)는 안랩(대표이사 강석균)과 지난 21일 경기캠퍼스 장공관 3층 1318 회의실에서 인재양성 및 산학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진행한 이날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 한신대 강성영 총장의 환영사, 강석균 안랩 대표이사 인사말, 한신대 및 안랩 소개 영상 시청, 협약서 체결, 기념 촬영,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업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발전, 특성화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대학 주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인재육성과 연구, 교육 등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 등 지역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한신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되어 인간 존중,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IT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한신대가 가진 자원과 장점들을 통해 안랩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무료 숙박권의 덫’... 보증금 지연에, 위약금 폭탄 피해 급증

### 유사콘도회원권 사기 주의보

올해 6월까지 전년비 72.1% 증가 계약 해지 시 청약철회 방해 빈번 “법적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돼야”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법적·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란 소비자가 리조트나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매한 후, 계약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를 말한다.

특히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리조트나 콘도의 이미지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있음을 암시하는 이미지.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신고

된 사례만 총 581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해 접수 건이 더 크게 늘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 신고 건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이었던 피해 신고 건수에 비해 72.1%나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건이다. 소비자가 콘도회원권 관련 계약 중도 해지 시 위

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는 최근 3년간 431건에 달했다.

문제는 피해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5년 5월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도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사례는 2086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에는 회원 유치를 위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부 콘도나 골프 회원권 판매 회사들의 위법 행위가 만연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회원권 구매 체결 계약이 사적 계약이다 보니 이를 미리 나서서 막을 수는 없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불안정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했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사례가 문제”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책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허경욱 교수 역시 “소비자들이 (불완전 계약)에 대한 지식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에 널리 알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의의 구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 역시 언론에 더 상세한 소비자 피해 정보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사적 계약으로 불완전 계약을 사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가 몇 년째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정관장 혈당케어 ‘GLPro’ 론칭 신제품 사전예약 진행

정관장이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 공식 론칭에 앞서 ‘GLPro 코어’, ‘GLPro 더블컷’ 신제품 2종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전국 정관장 가맹점 및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농협 매장에서 10월 29일까지 진행하며 사전예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5%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사전예약 대상인 ‘GLPro 코어’, ‘GLPro 더블컷’은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의 신제품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정관장 홍삼(KGC 05pg)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각종 부원료를 함유하고 있다. /신원성 기자

## LF몰 ‘가족의 발견’ 기획전 일상 속 에피소드 공개

생활문화기업 LF의 라이프스타일 전문몰 LF몰이 ‘가족의 발견’ 기획전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의 발견’ 기획전은 브랜드 상품과 콘텐츠를 연계한 월간 기획물이다. LF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쌍둥이 자매, 형제, 반려동물, 은퇴한 부부 등 다양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동시에, 일상 속 가족들의 스타일링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기획물은 매달 하나의 에피소드로 공개된다.

추후 고객들의 사연을 댓글로 모집해 출연시키는 방식으로 기획전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LF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SK바사 “미래 성장위한 투자”

###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발표

3분기 매출 616억, 영업손실 396억 R·D·생산 인프라 확장 투자 집중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616억원, 영업손실 3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24일 잠정 공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자 전환의 주요 이유로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손꼽았다.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만 총 3건의 글로벌 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CMO) 및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회사인 독일 IDT 바이오로지카 지분

인수에 투입한 비용은 약 2600억원이다. 또 미국 유망 바이오기업인 선펠라워, 피나바이오솔루션 등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추가 비용을 지속 투

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R·D 및 생산 인프라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글로벌 R·D 센터를 건립 중인데, 이를 위해 총 3257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안동에 위치한 백신 공장 ‘안동L하우스’의 증축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수준의 생산 시설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3분기 백신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투자한 연구개발비 또한 매출 대비 49.7%에 달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초 인수 절차를 완료한 IDT바이오로지카의 실적은 오는 4분기부터 연결 기준으로 반영됨에 따라 매출 및 자산 등 본격적인 외형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 동국제약, 위탁생산으로 생산력 확대

### 스킨앤스킨과 전략적 제휴 MOU

동국제약과 화장품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 스킨앤스킨이 화장품 사업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사는 ▲동국제약 화장품의 스킨앤스킨 위탁생산 ▲스킨앤스킨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한 신규 화장품 공동 개발 ▲양사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화장품 라인 기획 및 개발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의 공동 유통 및 마케팅 활동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스킨앤스킨은 LG생활건강의 지정 OEM 업체로 이미 검증받은 품질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또 스킨앤스킨은 국내 화장품 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강화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스킨앤스킨의 기술력과 동국제약의 브랜드 파워가 향후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2024 상상 블루 파빌리온’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KT&G

## KT&G, ‘상상 블루 파빌리온’ 공모전 개최

KT&G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알리고자 지역 폐기물을 재활용해 조형물을 제작하는 ‘2024 상상 블루 파빌리온’ 공모전 우수작을 발표하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KT&G의 대학생 참여 플랫폼 ‘상상 유니브’에서 기획한 ‘2024 상상 블루 파빌리온’ 아이디어 공모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236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8개 팀은 페타이어, 폐현수막 등을 활용해 조형물 제작에 나섰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최종 선발된 팀의 작품 심사한 결과 ‘이면지(한양대)’팀이 대상, ‘Paran(상명대)’, ‘블루투스(가톨릭대)’, ‘M&M’s(광운대)’, ‘S.E.P(경성대)’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GEERATION(가톨릭대)’, ‘상부상조(전남대)’, ‘아키토리(계명대)’는 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작에 선정된 8개 팀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20일 상상마당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작은 오는 27일까지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 전시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0 | 해질 / 17:42

10월 25일(금) / 음력 : 9월 23일

수도권 날씨 / 10~2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5/22, 동두천 6/22, 가평 5/22, 파주 6/21, 서울 10/23, 양평 7/22, 인천 12/22, 수원 10/22, 용인 10/22, 평택 8/23, 백령도 14/20

·지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체감물가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요즘 고깃집에 가면 상추, 깻잎 등 야채 인심이 박하다. 아예 조금 내놓거나 넉넉히 주더라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진 않는다. 야채 값이 올라 아쩔 수 없다는 게 주인장의 설명이다. 깻잎 한 장이 100원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목표치(2.0%)에 근접해 기준금리가 인하(3.50%→3.25%)됐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한은이 내놓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125.81)는 한달 전과 비교해 5.3% 상승했다. 지수 기준으로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부문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 전월 대비 5.7%나 상승했다. 배추는 61.0%나 급등했다. 토마토 51.1%, 상추도 44.7%나 뛰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16.1%), 쇠고기(11.1%)를 중심으로 8.2%나 상승했다.

밥상물가가 오르니 여기저기 아우성이 다. 야채값이 오르면서 '금치', '금추'란 말이 나온다.

'기후인플레이션(기후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 '런치플레이션(점심값 상승)', '피

시플레이션(생선값 상승)', '애그플레이션(농산물 등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신조어가 새롭지 않은 시대다. 일반 식당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1인분 1만원이 보통이다. 직장인들은 가성비 좋은 맛집을 찾기 바쁘다. 젊은층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하기도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주거 등의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육제도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은의 신뢰성도 커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조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앵겔지수(생계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상승은 서민에게 재앙이다. 식료품비 지출이 늘어나면 생활고를 피할 수 없다. 외식 산업 또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음식점들은 식재료 비용 인상을 소비자에

게 전가 시킬 가능성이 높다. 신선식품과 연동되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가격도 도미노 처럼 오를 우려가 있다.

물가상승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 원료값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물류비용도 크게 늘어나 해운, 항공 등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식당은 물론 요식·숙박·여행업, 레저 스포츠 등 연관 산업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땐 물을 사먹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10년, 20년 후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돈 쓸 일은 많아지고, 또 비싸지고 있다. 그러니 소비를 줄인다. 두 벌 사던 옷은 한 벌을 산다.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먹는다. 내수(소비+투자)가 위축되는 이유다. 내수가 위축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줄이니 중견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경제가 쪼그라드는 이유다. 경제성장률 연 2.0% 시대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농수산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생산·유통을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 핵심 수출품목도 늘려야 한다. 수년이 걸려도 가야 할 길이다.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전망이 밝아야 기업이든 가정이든 지갑을 연다.

/김용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 “델리 오픈런 하려고요”



**김지수**  
최 빛나 (유통&라이프부)

"한끼에 3990원이면 가성비로는 최고죠." "통닭 한마리에 7990원이면 끝입니다."

지난 주말 오전에 한 대형마트를 갔다가 델리코너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이다. 아침부터 델리코너가 북적였다. 재미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북적이나 가봤더니 갓 나온 따끈따끈한 볶음밥을 장바구니에 넣기 위해서였다.

많은 소비자들이 3990원짜리 델리 제품들을 여러 개 쓸어 담고 있는 진풍경이었다. 종류도 다양했다. 치킨, 김밥, 튀김 등

전통적인 델리 메뉴뿐 아니라 표고탕수, 치즈볼, 타코야끼, 맥앤치즈, 케이크 등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매장을 오픈한지 단 30분 만에 매대는 텅텅 비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50대 여성은 "맛있는 델리 사려고 오픈런했다. 요즘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서 델리 몇 개 사서 주말 기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 김스클럽 등 대형마트 4사의 델리 제품을 취재하면서 제품 경쟁력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체감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트 델리는 매장이 문 닫기 직전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었을 때 가끔 사먹는 제품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의 마트 델리 메뉴는 가짓수와 맛 품질이 확연히 달라졌다. 200여종이 넘는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 선보이

는가 하면 치킨, 김밥 등 뻔한 메뉴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의 요리로 범위를 넓혔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에게 왜 델리 제품을 강화했는지 묻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서다.

두 번째는 'e커머스'와 차별화시킬 수 있어서였다. 델리는 당일 조리·판매가 원칙인 특성상 e커머스가 유통하기 어려운 분야다.

예전의 마트 델리가 아니다. 가성비뿐 아니라 완성도 높은 델리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보기에 딸려오는 메뉴가 아닌, 그 자체로 사람들이 마트에 오도록 만든 매력적인 '한 끼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vitna@

오늘의 운세 10월 25일 (음 9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서글프다. **48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않는다. **60년생** 동쪽으로 가면 다투게 된다. **72년생** 노후대비는 젊어서부터이니 장기적 자금계획을 세우자. **84년생** 우선 한 걸음부터 떼고 보라.



**37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얻는다. **4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자금계획을 살펴보자. **61년생** 자포자기(自暴自棄)가 위험. **73년생** 도모하던 목표가 틀어져도 다시 세워서 일어난다. **85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단조로운 하루.



**38년생** 갈 길은 아직 멀다. **5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2년생** 가장 큰 해결점은 상대보다 성공하는 것. **74년생** 미(美)의 관점과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니 과한 성형은 신중하. **86년생** 주변에 봉사하는 일이 생김.



**39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51년생** 우물에서 송농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63년생** 후배와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75년생** 내일을 위해 되풀이하여 오늘 뛰자. **87년생** 도와주고 있는 상대에게 큰 기대는 마라.



**40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다음날로. **52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깊이 생각하자. **64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76년생** 흐르는 물처럼 일이 해결되니 차분하게. **88년생**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니 힘내자.



**41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더라. **53년생**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65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다. **77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연으로 상승하는 축복이. **89년생** 현상 유지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 겸손을.



**42년생**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할 만한 날. **5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한들 누가 봐 주겠는가. **66년생**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자. **78년생** 오년부터 열매를 수확하는 이득이 많은 날. **90년생** 외출할 때 계단 조심.



**43년생** 소피를 만나 새로운 소식을 얻어 일이 해결. **55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오는 격. **67년생** 협상에서 밀리니 마음이 우울하다. **79년생** 이직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91년생** 만나서 즐거움도 있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있다.



**44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 **56년생**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68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는 행동할 때. **80년생** 자고 나면 집안이 뛰어도 실망 말자. **92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쉬었다 가자.



**45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57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69년생** 기다려보라 서북쪽에서 귀인이 온다. **81년생** 다정도 병이니 배우자에게 지나친 간섭은 피하도록. **93년생** 노력의 결과는 우공이산(愚公移山).



**46년생** 재물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큰 행복이다. **58년생** 이사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될 것이다. **70년생** 인생은 결국 혼자. **82년생** 이별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자. **94년생**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편해진다.



**47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다. **59년생** 오늘 결재할 일을 미뤄도 무방하다. **71년생**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있는데. **83년생** 겨울이 가면 봄이 오기 마련이니 기다리자. **95년생** 닭에게 쫓이는 현상이니 양보의 미덕으로.



## 김상회의四季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기도는 어렵거나 행운이 함께할 때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도 혼자 힘으로 넘어서기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한다. 흔히 생각하듯 두 손을 모으거나 눈물을 글썽이며 특정한 모습이 되어야만 기도인 것은 아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빌거나 명상하듯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도 기도다. 입술을 조금 움직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빌고 싶은 내용을 혼자 말해보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간절하게 기도하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또 달라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에서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과 정성 그리고 꾸준함이다. 일반적으로 간절한 마음과 정성의 중요성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른다. 기도는 일상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질 때 큰 가피를 받을 수 있다. 기도의 효험을 보려면 정성 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절을 찾아 착실히 기도하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절에서 기도하던 마음이 집에서도 이어져야 하는데 단절이 생긴다. 불가에서는 기도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원하는 만큼의 가피를 얻으려면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의 기도는 어렵지 않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비는 것도 기도다. 차분히 앉아서 원하는 무언가를 나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기도다. 기도하는 이유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생각지도 못한 역경이 닥쳐왔을 때 기도는 기적 같은 해법을 제시해준다.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에 찾아오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얽힌 매듭을 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상의 습관처럼 꾸준히 지속하는 기도는 언제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	9	2		7	8
4		6		5	9
7			6		3
	1	3	9	8	
9		8			2
4	6		2		5
9	7		5	1	4

3			6	1	5
	2	4			6
8	5	7		4	
7					5
	8			9	
4					6
	2	3	8		1
5			9		3
9	3	1			7

9	7	8	1	9	8	2	6		
6	2	7	9	6	7	8	1	9	
9	8	1	2	6	7	9	7	8	
2	9	7	7	8	1	6	9		
7	9	8	6	7	8	1	9	2	
1	6	6	9	9	2	7	8	7	
8	6	9	8	1	9	7	2	7	
7	1	2	8	1	9	2	6	9	8
8	7	9	7	2	6	9	5	8	1

7	9	2	9	1	8	8	6	
2	8	9	6	8	7	1	9	7
1	6	8	7	8	9	2	7	9
9	8	7	8	1	2	6	7	9
7	1	6	7	9	9	8	6	2
8	9	2	8	7	6	9	1	7
6	2	7	1	1	8	9	9	8
8	9	8	9	6	7	7	2	1
9	7	1	9	2	8	7	6	8





#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 “특별규제 없는 동물용 의약품… 최소한의 독성평가 필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 추세지만, 동물용 헬스케어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치료제와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시장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잇달아 제시했다.

## 산업 성장세에 비해 법·제도 미흡 의약품 처방시 사람용 제품 대다수 헬스케어 기업들 시장 진입 한계

### ◆동물만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동물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규제에 있다.

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는 필요시 모든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처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들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의 85%는 동물용이 아닌 사람용 의약품이다.

승인을 받은 동물용 의약품 수가 적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가격이다. 생산 규모에 따른 생산 단가와 의료 보험 적용 등에 대한 문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반려동물의 맞춤형 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이 시장에 적극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청중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서 한 청중이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이 한계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거나 반려동물 제약사 혹은 이런 기업들이 국내보다 큰 글로벌 시장으로 문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들로, 동물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윤지 원장은 “동물들은 1kg도 안되는 환자부터 80kg이 넘는 환자까지 무게의 차이가 엄청 크다. 이 때문에 약한 알 이하해도 1kg, 5kg, 10kg 용량이 모

두 세분화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의사가 원치 않아서 아니라 규정이 부족한 문제로 동물들은 최선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반려동물용 의약품, 안전인가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약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윤리적 한계로 꼽힌다.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대표는 “바이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물 실험 등 윤리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기술 발전보다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바이오테크의 윤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위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동물 의약품 개발에도 ‘장기모사체(오가노이드)’ 기술이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희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오가노이드와 같이 동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물들을 위한 맞춤형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 중인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한계로 지적됐다. 제품 승인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탓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의약품의 제품 인증 절차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사용목적 ▲원료의약품 분량, 효능·효과 ▲규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7일 이내 이루어진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치약과 같은 경우 대부분 동물들이 삼키기 때문에, 계속 씹어다보면 누적 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또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도, 강아지나 고양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의약품 역시 최소한의 독성 평가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동물실험 등 윤리적 문제 부각 오가노이드 기술, 대안 부상 “최선의 치료 기회 놓칠 수 있어”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활용한 독성 평가가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성이라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입증 결과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정책 아이디어 장이 되길”

### 축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메트로 경제가 주최하는 2024년 제약&바이오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팜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2022년 8조원에서 14.4% 성장한 2027년에는 1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는 진료비 등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기반도 마련돼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과 의약품 개발, 반려동물의 난치병 등 의료계와 관련 업계의 기술 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벤처기업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반려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양질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포럼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산업발전에 큰 도움 기대”

### 축사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2024 제약·바이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반려동물들을 위한 치료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반려동물의 질병관리와 예방 등 포괄적인 헬스케어 솔루션과 서비스로까지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도 더욱 커지고 다양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망라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 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협회 소속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란 주제의 이번 포럼이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동물의 삶, 함께 생각해봐야”

###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



반려라는 단어로 개회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반(伴)’이라는 단어는 짝을 뜻합니다. 사람 인(人)자와 절반의 반(半)자가 결합한 것입니다. 절반의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의미 같습니다. ‘려(侶)’도 사람 인(人)변에 같은 등뼈를 맞닿은 사람이라는 뜻 같습니다.

반려라는 단어 뒤에 사람 자(者)를 붙이면 ‘반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려 동물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대상은 우리와 함께하는 반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물 의약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시장이 단순 사료나 난치치료 등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만 하지 못할 뿐, 반려동물과의 감정 교류나 차고 넘치는 애교 등은 대단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우리의 형제, 자식과 같은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반려동물 포럼을 이례서야 개최한 게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동물의 삶과 동물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견주·묘주를 비롯한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점검해보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 “반려동물 ‘암 치료’에 오가노이드 활용... 감염병 예측도 가능해져”

## 기조강연

유종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대표

동물용 항암제 감수성 평가 서비스 상용화  
오가노이드 약물평가 플랫폼 활용 방안 제시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이제 반려동물 산업에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기술 융합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국내에서 첫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설립하며 혁신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유종만 대표는 지난 23일 메트로경제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반려동물 제품 개발 전략을 공유했다.

오가노이드 기술이 가장 먼저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낸 분야는 반려동물 암 치료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세브란스 병원과 합작 기업 포도테라퓨틱스를 통해 최근 동물용 항암제 감수성 평가 서비스 ‘폴라리스-펫’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손진영기자 son@

했다.

반려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릴 수 있지만, 기존의 치료법은 수의사의 경험과 선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반려동물용 항암제 개

발에 오가노이드 약물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암에 걸린 강아지 또는 고양이에서 종양 조직을 일부 채취해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미리 시험하는 방식이다.

유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통해 단순한 조직이나 세포 배양보다 동물 체내 환경을 적절하게 구현해 약물 반응 정확도를 높이고, 최적의 항암제를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용 오가노이드를 통해 새로운 감염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유 대표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부터 닭, 돼지, 소 등 가축 등의 오가노이드를 미리 구축해 놓으면 감염병 대응 모델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숙주에서 각종 바이러스를 혼합해 볼 수 있어 감염병 진화 과정도 탐색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 기술의 응용은 반려동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유 대표는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진 성분이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려동물용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독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약의 경우, 사람은 이를 닦고 뱉어내지만 반려동물들은 대부분 쉽게 삼킨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이때 누적 독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반려동물 치아뿐 아니라 다양한 오가노이드로 약물의 약동학, 약역학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반려동물 영역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레드 바이오와 그린바이오를 모두 아우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최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안에 레드 그린 바이오 융합 연구소(RGB 연구소)를 전진 기지로 마련했다. 이 연구소는 인간 질병과 건강을 다루는 ‘레드 바이오’와 농업 기술, 농업 생명 등을 다루는 ‘그린 바이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 대표는 “새로운 융합 요소들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며 향후 연구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반려동물 의학 규제 재정비해야”

### 강연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하려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메트로경제신문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의 현주소와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의 맞춤형 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동물에게 사용하는 85%에 달하는 의약품이 동물 전용이 아닌 사람용 약품이다.

박 소장은 제약사들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현재 약사법과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관한 법령이 없고,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때문에 국내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하려면 정책적으로 시장의 한계를 풀어 나가거나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그라스메디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건강한 고양이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한 간편 진단 키트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또한 반려동물 맞춤형 약물 개발에 있어 제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약물의 안정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나노 마이크로 복합 입자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반려동물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행해지는 동물 실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동물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동물실험 줄이고 과학·윤리 공존해야”

### 강연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대표

유성지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AFI) 대표는 메트로경제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여해 동물 실험을 줄이고, 과학과 윤리가 공존하는 바이오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먼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기술의 특이점(Singularity)’ 이론을 인용하며, 2030년까지 과학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 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유 대표는 “바이오테크의 미래는 기술 발전의 속도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성과 함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 실험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언제쯤이 동물 실험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며 “결국 동물 실험

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며 그게 바이오테크와 어떤 기술적인 변화의 방향에 있어서 맞는 방향이다”고 밝혔다.

또한 유 대표는 과학과 윤리가 공존할 수 있는 시각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잔인한 일(동물실험)을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며 과학을 매도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과학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그 과학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다중표적 약물’ 반려견 치매치료 적용”

### 강연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지엔티파마의 이진환 박사는 지난 23일 메트로경제가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서 반려견 치매 치료제 개발을 통한 반려견 치매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지엔티파마의 목표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 ‘다중 표적 약물’을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지만, 반려동물용 치매 치료제의 중요성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엔티파마는 치매 쥐 모델에서 기존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테살라진’의 효능을 입증했는데, 해당 성분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 항산화, 인지기능 개선, 염증 억제, 뇌혈관장벽 보호, 뇌세포 보호 등에 효과를 보였다.



이 박사는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을 잃는 것”이라며 “반려동물 또한 인지기능장애를 겪는 것을 확인해 항산화 및 항염증이라는 다중 표적 가설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엔티파마는 지난 2021년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를 개발했고 이후에도 인간과 반려동물의 치매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지속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반려견 뇌전증’에 대한 제다큐어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 박사는 “발작, 경련 등은 산화적 스트레스나 염증과 연관이 있어 지엔티파마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항산화 및 항염증 다중 표적 약물 기전이 개 신경질환에도 사용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청하 기자

## “반려동물 암, 조기치료·관리 가능한 질환”

### 강연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은 메트로경제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해 반려동물 암 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먼저 반려동물이 사람과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암 역시 그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며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반려동물의 암은 더 이상 말기 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 치료에서 보호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도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가 단순한 생명 연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암 치료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임 원장은 “반려동물 암 치료에 있어 과학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치료법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며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 치료와 같은 최신 치료법도 반려동물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암 치료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만 더 나은 치료 환경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한테 (높은 비용의) 돈을 쓰느냐며 놀라는 분이 있으실 것 같다”며 “동물 환자들한테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을 들이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동물 치료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 국민 마리아주 와인의 탄생... '몬테스 윈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같은 작물인데도 늦게 익는 만생종이 있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 중에서는 까르미네르가 그렇다. 제대로 맛이 들기 전에 일찍 수확하면 풀을 씹는 것 같이 풋내가 나고 신맛만 된다. 그렇다고 꼭 익히버리면 과일즙이 되어 버린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을 시기를 찾아냈더니 잘 익은 과실미에 부드러운 타닌으로 마시기 쉽고, 음식의 맛은 더 살려주는 후추같은 와인이 됐다.

프랑스에서 멸종됐던 품종 까르미네르가 칠레에서 다시 태어났다. 프랑스와 달리 칠레 전체의 기후에서는 잘 익으면서 병충해를 피할 수 있었고, 와이너리 몬테스가 까르미네르를 제대로 이



1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의 카를로스 세라노 수출총괄 이사가 최근 '몬테스 윈스' 출시를 기념해 한국을 찾아 와인을 소개하고 있다. 2 왼쪽 두번째부터 몬테스 알파 까르미네르 2021, 몬테스 윈스 2020, 몬테스 퍼플 앤젤 2020, 몬테스 퍼플 앤젤 2015. /나라셀라



해하고 해석해 내면서다.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의 카를로스 세라노 수출총괄 이사는 최근 '몬테스 윈스' 출시를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까르미네르는 어디서 재배하는지, 어떻게 양조하는지에 따라 잠재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포도가 익어 당도가 올라온 뒤에도 부드러운 타닌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폴리페놀이 완속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잘 익은 까르미네르는 검은 후추 풍미에 모카 커피의 느낌까지 품게 된다.

사실 몬테스 역시 까르미네르라는 난제를 잘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원산지 프랑스에서는 배울 것이 없었고, 만생종임을 알고 있어도 비가 오는 6월

전에 빨리 수확하고자 하는 조바심이 컸다. 처음엔 와인을 양조하면서도 카버네 소비뇽 70%에 까르미네르를 30%만 섞어 보는 식으로 시작했다.

세라노 이사는 "품종에 확신이 설 때까지 연구를 거듭하고는 2003년에 까르미네르 비중이 92%인 아이콘 와인 '퍼플 앤젤'을 선보이며 선구자로 우뚝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몬테스가 찾은 모범답안은 까르미네르를 주품종으로 하되 다른 품종을 약간 섞어 고유의 특징을 더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몬테스 윈스는 까르미네르 85%에 카버네 프랑 15%를 섞었다. 까르미네르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만큼 다른 품종이나 아로마를 더하는 품종이 아니라 구조감만 보충해줄 카버네 프랑을 선택했다. '몬테스 알파 까르미네르'는 까르미네르 90%에 카버네 소비뇽 10%를, 퍼플 앤젤은 까르미네르 92%에 뽀피 베르도 8%로 만든다.

몬테스 윈스 2020은 코에서는 블루베리 같은 검은 과실에 향신료, 모카향 등 복합적이다. 입에서는 타닌은 실크같이 부드럽고, 좋은 구조감에 실제 산도가 높지 않음에도 충분히 신선하고 생기가 있다. 과한 구석이 없는데 후추같은 칼칼함이 있다보니 음식이랑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와인이다. 매콤한 양념 육류와도 마시기 부담없고, 와인과 상극이라는 겨자 소스와 같이 마셔도 좋다. 특히 와인하고는 제약이 많았던 한식 입장에서는 국민 마리아주급 와인이 생겨난 셈이다.

몬테스 윈스는 까르미네르 품종의 혁신 뿐만 아니라 와이너리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 창업자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시니어와 그의 아들 아우렐리오 몬테스 주니어가 함께 만든 와인이어서다. 한 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 그래서 윈(Wing)이 아닌 윈스(Wings)다. 두 세대 서로가 한 쪽 날개가 되어 함께 비상하겠다는 몬테스의 미래와 희망을 와인에 담았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하루키의 수필 속 비뚤어진 여성관

동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광팬이다. 하루키의 신간이 나오는 날 서점에 달려가 구매한 뒤 밤새서 소설을 다 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책장에는 하루키의 책들만 꽂혀 있는 '명예의 전당'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다. 그만큼은 누구나 다 한다고 말한다면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다. 하루키가 좋아한다고 밝힌 스포츠 피츠제럴드, 레이먼드 챈들러, 트루먼 커포티 등의 작품을 모아 놓은 서기도 따로 있다.

최근 동생의 책꽂이에서 하루키가 쓴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을 꺼내 읽다가 머릿속에서 재밌는 생각이 흘러나와 과안대소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생이 성난 얼굴로 하루키의 책들을 갈기갈기 찢은 뒤 불붙인 성냥을 던져 모두 불살라버리는 상상이었다.

동생과 달리 필자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가 작품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이 못마땅해 언젠가부터 하루키의 소설을 멀리했다. 에세이는 머리를 식힐 겸 가끔 읽는데 이 책을 읽으며 이전 수필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필자가 하루키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한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은 하루키가 1983~1988년 '하이패션' 등의 잡지에 연재한 글들을 묶은 에세이집이다. 책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하루키의 후진 여성관은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특히 젊은 여자에 대한 고리타분한 편견이 눈에 가장 거슬린다. "옛날에는 주위에 여자가 많으면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도무지 책 같은 걸 읽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여자들은 시끄럽고 자분대고 영 성가시군'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라든가.



쿨하고 와일드한 백일몽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안자이 미즈마루 그림  
김난주 옮김/문학동네

"가끔 젊은 여자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그녀들은 가난이 싫다고 단언한다. (중략) 그녀들은 가난이라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으니 당연히 난감해진다. 젊은 여자들이 난감해하면 나 역시 난감해지니까, 그 시점에서 나는 얼른 화제를 바꾼다." 라는 식의 끈대나 할 법한 생각들.

책에서 하루키는 쌍둥이 여자친구를 갖는 게 꿈이라고 고백한다. "쌍둥이 여자친구를 갖는 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처첩을 동시에 거느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듯하다. (중략) 그럼에도 나는 쌍둥이라는 상황을 좋아한다. 나는 그녀들이 지닌 은밀한 분열성, 어질어질할 정도의 증식성을 좋아한다. 그녀들은 분열하고 동시에 증식한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영원한 백일몽이다. 내게 딱 한 명의 여자는, 때로는 너무 많고 때로는 너무 적다." 동생이 하루키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대목이다. 참고로 동생은 현재 쌍둥이를 임신 중이다.

200쪽. 1만35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내 삶이 보물이 되는 순간

우리가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다. 심장은 몸속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기 위해 매일 10만번 뚫는다. 심장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신체 기관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헌신한다. 어떤 기관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멈춰 서지 않는다. 이것을 기적이 아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삶은 기적이며, 인생은 행복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닌 소소한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찾아내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328쪽. 1만9000원.



배연국 지음/글로세움

### 페미니스트, 경찰을 만나다

경찰들이 여성단체의 쉼터에 가정폭력범이 난입했을 때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n번방, 딥페이크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다. 저자들은 경찰 조직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해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은 그 노동의 결과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타의 조직과 큰 차이가 있다.

책은 '여경 무용론'이나 '여가부 폐지'와 같은 초라한 논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이 문제에 겹먹고 회피하는 대신 젠더와 맞물려 작동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경험하는 보통의 시민들을 위한 경찰의 모습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한다.

218쪽. 1만6800원.



이성은, 이경환, 주재신, 김창연, 이해리의 5명 지음/오월의봄

### 칭찬이 불편한 사람들

'경쟁을 피한다.', '리더 역할을 싫어한다.', '시키는 일은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만, 내 의견은 말하지 않는다.', '회의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묻어가려 한다.' 가나자와대학 교수인 저자는 요즘 2030대에서만 유독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한다. 바로 '타인 앞에서의 칭찬과 주목을 적극적으로

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됐을까.

책은 칭찬이 오히려 압박이 되고, 칭찬을 받는 것도 타인의 눈에 띄어서 싫다는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성향과 태도를 직관적으로 분석한다. "그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달라진 것이다."고 저자는 말한다.

292쪽. 1만8000원



가나자와대 지음/김지윤 옮김/포레스트북스

##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도 북한군 러 파병 공식확인...“목적은 더 지켜보아야”  
▲우크라이나 언론 “韓, 조만간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 낮아” /사진 뉴시스

▲“아빠 낙하산 봐”...가자지구서 구호품 파편 맞아 3살 사망  
▲韓북핵대표 “북러협력 전략적 우환거리, 국제사회 가용조치 강구해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3명, 해리스 지지 선언...“트럼프는 위협”  
▲조태열 “北, 중관계 악화 감내하며 러 울인에 근본적 의문” /사진 뉴시스





KB금융그룹  
순익 5조 클럽  
청신호  
08



Life

유사콘도회원권  
사기 주의보  
위약금 피해 급증  
니



# 행복 의미 담은 다양한 조형물 사랑하는 이에게 위로·힘 선물

## 아파트의 미학(美學)

### 안양역푸르지오더샵

석가산, 가든 등 조성... 편안한 분위기 연출  
행복 의미 담은 다양한 조형물로 공간 디자인  
주민 위해 마련된 티하우스에서 폭포수 감상  
부엉이, 모네의 집 모티브 등 테마 놀이터도

지난23일 찾아간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역푸르지오더샵'. 푸르지오와 더샵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으로 고급스러움을 자아냈다.

안양 진흥아파트 1~4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10월 입주를 시작했다. 1호선 안양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앞에 어린이집과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새마을금고가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안양초등학교, 근명중·고교와 대림대학교 등이 있고 단지 앞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안양역푸르지오더샵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1개 동, 총 2736세대의 대단지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41㎡ ▲59㎡A·B·C·D·E ▲74㎡A·B ▲84㎡A·B ▲99㎡로 구성됐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광과 채광을 극대화했고 동간 거리도 최대한 확보해 사생활 보호가 우수하다.

전용면적 84㎡A타입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및 4베이(BAY·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 구조에 방 4개, 넓은 거실과 주방 등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특화평면을 자랑한다.

단지에는 안양역푸르지오더샵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내에 석가산, 큰 나무, 가든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조각상 '히어 어스(Here Us)'는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담는다'는 셸피의 경험에 의해 구상됐다. 잔디 광장에서 거주민들이 작품을 들여다보며 하늘과 건축물 그리고 계절의 맑고 흐린 날씨 등 다양한 공간을 담아 낼 수 있다.

단지 중앙에는 총 네 개의 석가산이 하나의 조경을 이루고 있었다. 세번째 석가산 앞에는 티하우스가 있었는데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공간에서 인공연못 안 다양한 조형물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김계현 작가의 작품 '풍요를 담다'를 따라 석가산을 나오면 놀이터 '부엉이 지휘자의 별빛 선물'이 보인다. 빅스케일의 부엉이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별빛 선율과 밤하늘을 밝히는 빛을 즐길 수 있는 조명특화 놀이공간이다. 아이들은 부엉이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연주하며 놀 수 있다.

이외에도 모네의 집을 모티브로 한 놀이터 '모네의 빛의 정원', 영화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명감독 박팽권', '잃어버린 운명을 찾아서'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팽나무숲에서는 전통 석가산과 벽천이 합쳐진 수경 시설 '두얼부석가산'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조경공간으로 '새벽의 차분함(Calm of the Dawn)'이란 티하우스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수와 함께 묵은 스트레스와 근심을 날릴 수 있다.

이 곳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우레탄 도장 LED 조명'이란 이름의 건축물도 있다. 공동체의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람 간 그리고 세대 및 계층 간의 이해와 배려의 중요성을 표현해냈다.

단지 내 조성된 조각상 '우산이 되어 줄게'는 살아 가며 힘든 순간 사랑하는 이에게 위로와 힘이 돼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자 한 작품이다. 비가 오는 날 아 기쁨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어른 꿈의 모습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안양역푸르지오더샵의 조경을 한마 디로 표현하는 것 같다.

/전지원 기자 jw13@metroseoul.co.kr



1 단지 내 조성된 석가산  
2 생태보호 연못 '수생비오톱'  
3 팽나무숲에 조성된 티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벽천  
4 조각상 '풍요를 담다' /전지원 기자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국민은행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자립준비청년들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하여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길스토리와 함께  
단편영화 문을 여는 법을 기획·제작하였으며

예술에 관심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함께나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소중한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을 여는 법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단편영화  
2024년 11월 20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예정  
(기획 및 제작: KB국민은행, 길스토리이엔티,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

함께나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창작가의 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캠페인  
(주최 및 주관: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 후원: KB국민은행)



 KB 국민은행